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2016년 9월 11일 (제86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강회복 차 산상집회를 마치고 몇 주간 기도원에 기거하면서 우리 기도원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고추 수확하는 것도 보고, 과수를 관리하는 것도 보면서 농사란 결코 쉽지 않는 일임을 새삼 느낀다.

본시 나는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이 땀으로 땅을 일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갈라진 농토에 앉아 그저 하늘만 쳐다보셨다. 또 일조량이 적을 때도 여물지 않는 벼이삭을 훑으며 울부짖으셨다. 어떤 때는 곡식이 잘 여물어 거둬들이기만 하면 될 때에 우박이 떨어져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보았고, 태풍이 일순간 모든 것을 앗아간 기억도 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망연자실했었다.

그렇다. 인간의 수고로도 안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추석을 맞을 때마다 생기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추석이 '한국적 추수감사절'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햇곡식을 조상의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리는 것을 그려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당히 받으실 분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조상이 도와서 풍작이 된 것이 아니다. 조상의 은덕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키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를 그 분께 드리고, 그 분께 감사해야 옳다.

긴 연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자.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추석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다.

조금 이른 추석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린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맞춰 2016 JC아카데미가 방학을 마치고 개강했다. 이 날, 전(前) 학기에 구약 강의를 마친 이시대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을 감찰하시는 설교를 하였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의(義)를 가르치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

고 의를 행하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시대 목사님은 과거 청년부 교역자 시절, 부흥이 하도 잘되고 있기에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 부장과 상의하여 가장 많이 전도하는 청년에게 자동차를 주고, 2, 3등에게는 핸드폰과 삐삐를 주겠노라고 광고를 하셨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청년부에 큰 부흥을 기대하며 흥분했던 목사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하던 임원들이 손을 놓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답답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임원들에

기 위협일 것이다.

지난 주, 우리는 2014년 서울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땀방울 같은 땀방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 7시까지 밤을 새어가며 무대를 설치한 성도님들, 그 날의 아름다운 공연을 위해 석 달 전부터 개인시간을 쪼개 연습한 청년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전도한 성도들, 전국잔치를 위해 본인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고 기도로 후원한 성도들, ... 사람이 보기



JC 아카데미 (2016. 9. 2, 엘루체 컨벤션홀)

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1~5).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직장에서도 사주와 상사들의 인정이 있어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에서도 스승이나 동료의 인정이 있어야 신나는 학교생활이 이어진다. 또한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인정과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게 ‘자동차는 누가 탈거냐’고 하셨단다. 그 때 한 청년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는 자동차를 보고 일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상을 보고 일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길로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롭게 시작했더니 예상치 않은 배가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제주도 1,000명의 청년을 데리고 하계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우리 예수중심교회에는 전도상이나 선행상, 공로상은 일절 없다. 여기에 더해 현금이나 십일조 명단을 발표하지도 않는다. 이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심이요, 이 땅의 헌신과 봉사로 인한 그 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려주시

도 그 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외상이 없으시며 행한 대로 분명히 보상해주시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 왔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몰라주면 어떤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고맙다고 미소 짓고 계시는데. 2016년 10월 3일 제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봅시다!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평화통일 기도성회

2016.10.3 오후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전제품 파는 곳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점원이 그 사람의 옷차림만 보고는 안 판다며 나가라고 밀어냈다면, 그 점원은 자격상실입니다. 허름한 그 사람의 안주머니에 두툼한 지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허름한 사람이 와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도, 못 배운 사람이 와도, 노인이나 아이가 와도 물건을 팝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손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모를 지녔든, 경력이 화려하든, 무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은 오로지 돈만 봅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 관계없이 물건을 팝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미모, 재력이나 권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중심만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요 1:12). 그 믿음이 사지가 마비된 저를 고쳤고, 그 믿음으로 저는 앓은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 뜨게 하며, 귀머거리, 병어리, 각색 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요 1:12~13).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 일5: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진짜 소경이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 보자면 그것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5~16),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 자식 맞나?’ 이렇게 아리송한데 어떻게 하인에게 명령을 하겠고, 행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함은 곧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행2:38).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 곧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골 3:1)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일도 하게 됩니다(요14:12).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우리가 감히 하겠느냐, ‘이단이다’ 라고 합니다. 하긴 귀신만 쫓아도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에 그렇습니다(호4: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의 집사들도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이한 일을 행했는데, 우리는 귀신 한 마리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하나님께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6~11).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 받으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나도 너희에게 맡겨”(눅22:29).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원수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골 3:1)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일도 하게 됩니다(요14:12).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우리가 감히 하겠느냐, ‘이단이다’ 라고 합니다. 하긴 귀신만 쫓아도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에 그렇습니다(호4: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의 집사들도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이한 일을 행했는데, 우리는 귀신 한 마리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하나님께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6~11).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 받으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나도 너희에게 맡겨”(눅22:29).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원수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기도로 성령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원과 만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원과 백만 원의 가치는 더욱 다르지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누

구나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 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해외집회를 나가면 하루 7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각색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 먹고 병어리 된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눅스 총은 총이 아니다 눅스 총구를 닦아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방전되면 전화할 수도, 모르는 것을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핸드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도와 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전화번호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행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여러분, 옛날에는 유선전화였습니다. 전화기 앞에 가야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어디든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인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인제사장 시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화를 걸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이 지갑에만 있으면 돈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쓸 때 그 가치가 나타나듯, 예수 이름도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이름 앞에 만물과 만인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미락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로 당신을 부르신다!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 한 때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로 사용된 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도 드물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국가로, 극빈국에서 선진국의 반열로 변모했다. 그것도 일제 식민지하의 온갖 수탈과 억압의 상처를 딛고, 동족상잔의 비극과 지금도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중인 휴전(休戰) 상태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산을 깎고 다리를 놓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그 부질없음을 성토했다. 포항 앞바다 모래사장에 터를 닦고 굴뚝을 세워 제철소를 만들 때도 그랬다. 하지만 부질없음을 줄 알았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동맥이 되었고, 비웃고 조롱했던 제철소는 산업화의 쌀이 되어 국민을 먹여 살렸다. 서슬 퍼렇던 유신시절,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를 외친 끝에 서울의 봄이 찾아왔고, 군부독재의 총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의식으로 인해 이 땅에 민주화가 꽃 피었다. 역사 이래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에 없다. 이 모든 열매 뒤에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보다 앞서 땀을 흘리고, 목청을 돋워 서로를 격려하며 뺨뺨어진 현실을 질타하고, 가정과 나라의 미래

를 위해 젊음과 피를 쏟은 바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평화로운 때에,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에 무슨 대규모 집회냐, 우리만 이렇게 모여 기도한다고 어찌 되겠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가면으로 위장되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위기불감증에 걸린 이 사회에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뒤흔 감옥에서 쓴 유명한 글귀이다. 본래 논어(論語)에 나오는 글로서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상태,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리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견제. 또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남남갈등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군가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공산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 그 누군가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무감각해진 심령들을 일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자!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여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해병대 시절 특수교육을 받을 때 다이내마이트를 터트리는 훈련도 했었지. 그 때 어떻게 했는가? 다이내마이트를 설치하고 그 선을 길게 끌고 와서 불을 땡기면 불이 그 선을 타고 들어가 다이내마이트가 폭발했지. 갑자기 웬 군대 얘기냐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걸 말하려고 하네. 같은 사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건 선을 따라 들어가 뇌관이 터지듯, 내 속의 요소를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일세. 불신의 요소가 있으면 못 믿는 거고, 음란한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남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도 음란하게 보인다는 거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거야. 12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네.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12명이 봤다네. 그런데 10명이 보기에 그 땅은 사람을 삼킬 것 같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 커서 자기네는 메뚜기 같았다는 거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라고 했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똑같은 곳을 동시에 보았는데 말일세. 그건 그들이 어떤 눈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다른 거라네. 10명은 두렵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커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달랐던 거지. 여보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하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네. 잡초도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도 시야에 들어온다네. 이 세상이 다 미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지.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겸손할 수 있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는 마음이 일게 되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빌2:5). 자네의 눈이 어떤지 살펴보게나.

朋友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강철왕 카네기가 계속되는 회사의 적자를 알아보기 위해 중역들을 불렀다. 그러자 자본이 부족하다, 인재가 부족하다, 경제가 좋지 않다 등 이유를 댔다. 가만히 앉아 중역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문제, 직장 and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은 사는 동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문제들이다. 반면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삶은 긴급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의 소홀함!’ 이 땅의 긴급한 일들로 열려하고 근심하

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놓지 않았던 믿음의 선전들이 있다. 모세, 라합,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높여주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성회를 개최하신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10월 3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평화통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

어느 날 운전을 하며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다. 70이 다된 성도의 가슴 아픈 사연이다.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은 내며느리 좀 구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술 먹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했는데, 아들 녀석이 그걸 보고 자라더니 내가 하던 그대로 며느리에게 한다며 아들 녀석이 감옥에 가도 좋으니 우리 며느리 좀 구해달라는 눈물의 호소였다. 이제야 젊은 시절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슴을 찡다는 방송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다. 부모의 잘못된 삶은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 전쟁 상황 중에 서로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하나씩 끌어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다. 600만이면 도대체 얼마인가? 부산 인구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히틀러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물건을 사다가 돌아다니면서 파는 행상인이었다고 한다. 물건을 다 팔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비우다

돌아온다. 그 아버지는 집을 늘 비웠으며,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히틀러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이웃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그 사람들 중, 돈 많고 세력이 있던 유대인과 어머니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그는 보고 자랐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히틀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미워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였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과물이 됐고, 주변에 수없는 여자를 뒤흔기지만 여자들을 미워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자녀들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고 했다. 자녀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것은 부모의 명에도 부모 아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는 모습, 교회를 잘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며 선물이고 유산이다.

임택함 목사

기분 나빠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 지요. ‘저 친구는 그것만 고치면 훨씬 나을 텐데’, ‘저 선배는 그것만 달라지면 인정받 을 텐데’, ‘저 분은 그것만 안 하면 부하직원 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누군가도 우리를 보 며 같은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재는 그것 만 고치면 좋을 텐데...’

거울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늘 앞모 습뿐입니다. 절반인 뒷모습은 언제나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앞모습은 어떻게든 본인이 가꾸고 다듬고 보완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누군가가 얘기 해주어야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 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옷이 빠져나 왔는지, 뭐가 묻었는지 말이죠. 이처럼 우 리의 성격, 실력, 행실도 다른 누군가의 조 언을 통해서만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 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 면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야 하는 것이지요.

헌데 아무도 내게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는 다면, 나는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드 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혹은 도리어 듣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담 스러운 정도로 크게 낙담하기 때문에 상대 방이 입을 닫아버렸을지 모릅니다.

스무 살 초반에 저는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족들, 선배, 친구 들한테서요.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 에게 되레 이해가 안 간다며 따지고 들었지 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제가 저의 의견만 정 답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잘 존 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그 때의 저보 다 지금의 제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되었

다고 확신합니다.

작년 친한 선배에게 저의 일하는 스타일에 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렵게 물어본 적이 있 었습니다. 항상 정답을 내놓는 대신 모험은 털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반 박할 다양한 변명들이 있었지만 그 말을 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를 움직이고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지요.

자신이 볼 수 없는 뒷모습, 자신이 알 수 없 는 단점, 자신이 모르는 약점을 다른 사람 의 입으로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당연 히 기분 나쁘지요. 때문 그것을 말하는 상 대방의 의도가 불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러나 그 말을 듣고 고치면 단점은 사라지고 약점은 어느새 강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 잡언 8장 33절의 말씀처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맙시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한 병사가 그의 부친과 형제들을 전쟁터에서 다 잃어 버렸 습니다. 그는 시골에 홀로 남아 농사를 짓고 있는 홀어머니를 생각하고 군 복무 를 면제 받기 위하여 대통령을 만나러 백 악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병사의 신분 으로 대통령을 만나기는커녕 백악관 안 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낙심하여 공원에 앉

아 있는데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말을 걸 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요?” 하소연할 곳이 없던 차에 어린 소년이지 만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년이 자신이 도 와주겠다고 병사의 손을 잡고 백악관의 다른 문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을 지나가는데도 무사통과였습 니다. 각료들의 방을 지나서 대통령 집무 실에 이르렀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텍수염이 난 링컨 대통

령이 그 아이를 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 다. “토드 웬일이니?”, “아빠 이 군인 아 저씨가 꼭 할 얘기가 있대요.” 병사는 자 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군 복무를 면제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 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잘 것 없어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상화평 목사**

JC아카데미

엘루체 컨벤션(9호선 구반포역 3번 출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 생활 속의 잠언 ::

반중 조흥감

‘반중 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 자 아니라도 품음 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 세 글로 설워하나이다.’ 중국의 삼국시대 때 인물인 육적(陸積)의 고사를 인용한 시조이다. 여섯 살 난 육적이 스승인 애술(哀術)을 찾았을 때, 대접으로 굴 몇 알을 내놓았다. 선생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를 봉양하 고픈 생각이 불현듯 든 육적은 굴을 품 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하 직인사를 하려 하자 그 굴이 쏟아져 나 왔다. 스승 애술이 왜 먹지 않고 품에 품 었냐고 물으니,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 해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

고교시절 이 시를 배운 후 가끔씩 입에 서 이 글귀가 새어 나올 때면 막연히 부 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훌쩍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 고, 어머니는 어느 사이 80이 넘는 할 머니가 되셨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시 작했기에 철이 든 후 어머니와는 일주

일 이상을 함께 지내 본 적이 없었다. 덕분에 지금도 어머니와 알 수 없는 서 먹함이 존재하지만, 어느 날 이 시구를 읊조리며 ‘그래~! 돌아가신 후 물어봐 야 소용없으니 살아생전 여행이라도 모 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서 평생 처음으로 일주일이라는 긴 시 간의 휴가를 냈고, 어머니와 일주일간 제주 여행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도 딸 과 둘만 여행을 가시는 것이 서먹하셨 는지 고모님(어머니의 시누이)을 함께 모시고 가자고 하셨다.

83세의 할머니 두 분과 함께 하는 여행 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불안해보 였다. 지병이 있고 시력상태도 좋지 않 은 사람이 과연 할머니 두 분을 일주일 씩이나 어떻게 모실지 다들 궁금해 했 다. 제주 공항에 도착한 두 분과 함께 한 첫날은 그저 반가움과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잘 넘겼다.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서 어머니의 건강에 문 제가 생겼고, 시누-올케 사이의 신경

전은 서서히 도를 넘게 되었다. 그리고 온갖 사연 끝에 일주일의 여행은 닷새 로 끝이 나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 아갔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느낀 것은 부모님 과 함께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어린 날, 오늘 같은 여행을 함께 했다면 지금보 다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평소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알뜰하 게 챙겨드릴 수 없었음이 못내 후회가 되었다.

추석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머니 의 마음은 동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쁘고 살기 힘들어도 가 까이 계시고 살아계실 때 마음 한 조각 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딸이 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어느 날 문득, 현실이 될 그분의 부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 파온다. 살아생전 섬기기를 다하는 자 녀들이 되기를 기도해본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채움과 비움!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 지만 논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벼 가 부실해서 하찮은 바람에도 잘 넘어진 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은 논에 물을 빼 고 논을 비워 줘야 벼가 튼튼해진다고 합 니다. 때때로 우리 삶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장례 식도 치르지 말라. 쓸 만한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하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것이 더 낫다. 유산은 맹인복지에 써라.”

평생을 의료사업과 한글사랑에 헌신해온 외길 90년 공병우 박사의 유언입니다. 그 는 한국 안과 의사이자 한글 타자기 발명 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관심 속에는 늘 사 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자리 잡고 있 었습니다. 그는 맹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던 아름다운 의사였습니다. 그 의 죽음은 이들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 졌을 만큼, 그는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습 니다. 빈소나 묘지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 히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비록 그의 죽 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지만 그분 이 남기고 간 마지막 채움의 삶은 우리 곁 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남산 1호 터널 통행료를 천원 정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군 가 만원을 내면서 “내 뒤로 오는 차 아홉 대를 그냥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아홉 사 람은 단돈 천원에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 워야 할 삶이 바로 채울 때와 비울 때를 아는 지혜가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가 땀 흘리며 열심히 채우는 목적이 바로 참된 비움을 위함이니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 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 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 Global Study ::

☞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No one is born great.
The greatest person is
the one who moves God by prayer.
没有一个人从一出生就是一个伟人。
最伟大的人是以祷告来使神做工的人。

☞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A lack of prayer brings lack in everything.
Sell 祷告的不足是一切的不足。